

#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인드라망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거대 그물망 인터넷. 그 안에서 네티즌들을 불자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인터넷이 일상생활이 되면서 사이버 포교에 대한 중요성도 뜨겁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만큼 효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불교계 사이트의 숫자는 타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고 그나마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공간도 문명화 중생계다. 사이버 공간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포교의 현장인 것이다. 사이버 공간 속 불교계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 기술력 높이고 사이버 포교사 양성을

- 글 쓰는 순서 ●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서명
-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 13. 기차방담

### 모바일·DMB시대 대비해야

2005년 7월 현재 '네이버' 디렉토리 검색으로 분류되는 불교사이트는 모두 2155 개이다. 카페는 233개, 블로그는 10만4971 개이다. 기독교 카페가 328개이고 블로그가 11만3785개인 것과 비교해서 많이 모자라는 수치는 아니다. 반면 기독교 사이트는 4324개로 불교의 두 배가 넘는다. '다음'의 카페와 블로그를 살펴봐도 유사하다. 이제 네티즌들의 활동은 블로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 불교계는 사이버 포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기술과 콘텐츠, 승가 인터넷 교육, 포교 인재양성 등이 사이버 포교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휴대인터넷

등에도 관심을 돌려 적합한 콘텐츠 개발도 해야 한다. 현재 불교계의 사이버 포교는 인터넷에 편중되어 있다. 모바일 DMB 등 다른 기술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통한 포교가 타종교에 비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최근 조계종이 템플스테이 영문 사이트를 오픈하고 국제사이트 개설을 준비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한국불교 알리기(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준비단계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운영하는 '부다피아' 러시아판·중국어판 서비스와 8월 오픈할 영문판 서비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이버 포교를 잘 하려면 스님들이 먼저 사이버 세상을 알아야만 한다. 때문에 스님 대상 컴퓨터 인터넷 교육이 필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난 6월 개원한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우리나라 최초로 다음 카페 열린절(cafe.daum.net/buruna21)을 모태로 오픈라인 절 열린선원을 개원한 독특한 사례이다. 능인선원(원장 지광, www.gotobuddha.org)은 불사나 불교대학 입교신청을 인터넷으로 해결한다. 사찰 가상체험, 인터넷 방송과 소풍물까지 구비하고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수행 상담 코너를 운영하는 현정선원(www.tuoyee.or.kr) 무심선원(www.mindtree.net) 등은 수행에 목마른 네티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스님들이 사이버 포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방송 불교음악감상실(www.sambori.com)을 운영하는 보명(오른쪽)·지허 스님(가운데)·박금표씨.

### 불교 사이트 중단 인증제 도입 시급

사이버 포교를 담당할 인재양성도 시급하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4대 종단 어디든 사이버 포교사를 양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준비도 미흡하다. 4대 종단은 사이버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이버 포교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 포교사 제도를 운영해 불교교리와 포교능력, 컴퓨터 인터넷 활용 실력 등을 검증 받은 인재들을 선발해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쓰레기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사이버 포교사들을 적극 양성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불교정보를 알려야 한다.

또한 각 사찰마다 담당 사이버 포교사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가 3천만명을 넘어서는 현재 체계적인 사이트 관리 없이는 네티즌을 사로잡을 수 없고 포교영역을 넓힐 수 없다.

그리고 불교 사이트 중단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우수 쇼핑몰에 주는 이트러스트 인증제와 신뢰성 있는 불교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중단 인증 마크를 달아야 한다. 정보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초심자나 불교에 관심있는 이들을 위해서 잘못된 불교정보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인증제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지연 기자

### "감성 자극하는 콘텐츠 개발해야"

#### 이구형 동국대 겸임교수

"홈페이지는 네티즌의 놀이터다. 디카족이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코너를 불교사이트들도 열어줘야 한다."



인간공학을 전공한 이구형 겸임교수(동국대)는 "사찰 홈페이지는 사찰 각각의 특성을 살리되 중단 차원에서 일정 포맷을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찰 홈페이지가 통제되면서 오류 정보들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훌륭한 콘텐츠가 되려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쉽고 가깝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쌍방향 매체로 쓰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이버 포교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기술은 결국 인간의 감성이기 때문에 콘

텐츠는 기존의 불교문화를 어떻게 감성을 자극할 수 있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이야기에 감동한다. 감성적인 콘텐츠는 쉽고 호감 가는 사람이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즉 사찰에서 생활하는 '스님'이 생산한 내는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관공상제 등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콘텐츠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교문화디자인공모전 등을 통해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를 보장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공모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모에 뽑힌 작품은 전시를 통해 1차, 사이트에서 2차, 네티즌들에 의해 3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에서 법회의 법문 요약만 읽어도 이미 나는 법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이 교수는 사찰의 풍경을 담은 스크린세이버(화면보호기)를 만드는 사소한 것에서 콘텐츠 개발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인터뷰

### "1사찰 1사이트 결연 기구 만들자"

#### 카페 5개 운영 배광식 교수

"원호 스님이 지금 태어나셨으면 인터넷에 파묻혀 사셨을 것이다."



배광식 교수(서울대)는 사이버 포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배 교수는 2000년 6월 수미산(sumisan.hihome.com)을 개설한 이래 광륜사 카페(www.freechal.com/goldenwheel) 다음 금강 카페(cafe.daum.net/vajra) 네이버 금강 카페(cafe.naver.com/huinen) 금수레 불교도서관(cafe.daum.net/muyousim)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배 교수는 "청와대 컨설턴트의 법문을 알리고자 '수미산'을 만들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금강 카페를 열었다"고 여러 사이트 운영 계기를 밝혔다. 배 교수는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수행

과 전법을 같이 한 것처럼 사이버 포교에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단과 교구본사에서 스님 인터넷 교육 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사이버 포교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현대인의 접근을 찾는 것이라는 배 교수는 "요즘 세대의 시각으로 경구를 재해석하는 경전의 현대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단 차원의 인터넷 관련 통합 협력 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배 교수는 "협력 기구가 사이버 포교 불교정보화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인터넷의 불교정보를 모니터링해 쓰레기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단 사찰 사이트들이 초심자를 위한 배려를 넓혀야 한다"는 배광식 교수는 "1사이트 1사찰 결연 기구를 만들어 온·오프라인을 겸한 신행과 수행의 장을 여는 것이 불교 활성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 ■ 박수호씨 제안 '사이버 포교 잘 하려면'

사이버 신행 등을 연구해온 박수호 선임연구원(중앙승가대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은 사이버 포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 ●종단차원에서 기술 활용전략 세우자

기술 습득·활용에 대한 스님과 종무원의 낮은 이해를 교육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종단은 기술과 불자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이버 포교 기술활용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인터넷 활용법 교리적으로 재해석해야

한국불교는 '선(禪)' 중심 사교로 인해 '교(敎)'를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 수용이

늦다. 개신교나 가톨릭 모두 인터넷 활용법을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재해석해 내고 활용한다. 불교 역시 인터넷이 어떻게 불교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교적인 재해석 작업이 필요하다. 응용불교학 활용과 인재양성도 중요하다.

#### ●사이버 신행활동이 곧 포교다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신행은 크게 종단 사찰 단체 중심과 재가자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종단 사찰 단체 중심은 정보 제공, 재가자 중심은 정보 공유와 신행 활동 위주이다. 송광사 사이버 법회, 한마음선원 상담 등은 적극적으로 네티즌과 교류·포교하는 곳이다. 카페에서 활

동하는 불자네티즌들은 신행활동이 우선이지만 이들을 보고 가입하는 초심자들에게는 포교사의 역할을 한다.

#### ●무선인터넷 폰이 키포다

디지털 정보기기는 인터넷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전환해 휴대폰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DMB도 휴대폰으로 이용한다. 무선 인터넷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개인정보기기로 변하는 추세다. 2006년 중후반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Wireless Broadband)가 상용화되면 개인정보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저용량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

#### ●세대별 포교전략 다시 짜라

지금까지 불교는 불자라는 대상을 '외호자' 정도로 평면화시켜서 보아왔다. 그러

나 불자라는 테두리 속에는 이질적인 다양한 연령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세대적 기능 불자모습을 파악하고 종단의 포교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포교연구소를 만들어 불교 학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포교방법론과 불자의 세대별 특징 등을 밝혀내야 한다.

#### ●미래 위한 투자는 청소년 포교

20대 이하 포교는 이윤창출이 되지 않는 투자이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인터넷은 유소년층이 자기 욕구를 발산하는 곳이다. 각자 공부로 인한 단절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이다. 불교도 청소년들의 욕구를 분출시킬 수 있는 사이트를 열어 관계 회복과 다양한 체험 코너를 제공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 2005년도

#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사상 · 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 무전장스님(본대학장)·박종(동산불교대교수)·정일스님(승가대교수)·김형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권기종(동국대교수)·최종석(금강대교수)·윤영수(문화재단연구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활안스님(금강선원이사장)·김호리(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정토사상	· 안도스님(전포교원장)·최봉수(동국대교수)·주명철(동국대교수)·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김상영(승가대교수)·표주스님(동국대교수)·태원스님(승가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100명)(50명)(50명)	·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5년 7월15일 ~ 2005년 8월 5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05년 8월 6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와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학과	교과목	교수
불교한문학과(3년)	· 설문해(1.2), 천자문, 주역(1.2)한문법(1.2), 금강경, 심지품 등	황안용(원경대교수), 김형준(동대부고교장), 심재동(동국대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승려·승려부부, 계다학(1)(2), 차도론한국의 현대	이귀례(교정선생님), 선혜스님, 박희준, 박진영교수, 지은스님
불교정예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제 등	김일무교수 외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법, 여래초, 보살초, 사랑초등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티베트어강좌(1년)	· 티베트어문법, 티베트어강독, 산스크리트어	최종남 교수(승가대)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한문학과(명규·50명) · 불교다도학과(명규·50명) · 불교정예문화학과(명규·30명) · 불교미술학과(명규·30명) · 티베트어강좌(명규·30명)	·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5년 7월15일 ~ 2005년 9월 3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정예문화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티베트어강좌)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한문학과 : 2005년 9월 8일 (목), 다도학과 : 2005년 9월 6일 (화), 불교정예문화학과 : 2005년 9월 6일 (화)

불교미술학과 : 2005년 9월 7일 (수), 티베트어강좌 : 2005년 9월 8일 (목)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